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일상적 바깥놀이 실태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Daily Outdoor Play Parents Recognize (Focused on Gyeonggi-do)

김용숙*, 윤희봉**, 유지은***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중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서울한영대학교 유아특수재활학과***

Yong-Sook Kim(yskim82@joong.ac.kr)*, Hee-Bong Yoon(yoon0851@hanmail.net)**
Ji-Eun Yoo(my-yujieun@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K시의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일상적 바깥놀이의 실태를 분석하여 바깥놀이의 질적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부모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바깥놀이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후 유아교육전문가 3인의 협의 하에 수정·보완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0.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바깥놀이터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깥놀이 현황에서는 부모들은 바깥놀이에 대해 필요한 시간은 1-2시간, 형태는 “숲 놀이터”이며, 이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코가는 길에 차량의 위험”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둘째, 바깥놀이 실태에서는 집 주변에 대부분 바깥놀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이었으며, 대부분 엄마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깥놀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이유는 관리의 소홀함과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만한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바깥놀이 보다는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특히 게임 또는 TV 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바깥놀이의 개선점으로 영역은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형태는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 공간형태는 “놀이 공간”이며,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차량 통제 및 위험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바깥놀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기관 및 연구에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심어 : | 바깥놀이 | 부모 | 유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 of children's playgrounds in K which parents recognize as in Gyeonggi-do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qualitative environment for daily outdoor play of young Children. To do so, a survey of 269 parents living in Gyeonggi-do was conducted and reconstructed based on the advanced research related to outdoor play. Also it was evaluated and revised after consultation with 3 children education specialists. The repossessed questionnaires were frequency-analyzed with SPSS 20.0 program.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outdoor playgrounds i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it was analyzed that parents required 1 or 2 hours for their children to play outdoors in a type of "forest playgrounds." Moreover, they said that it was really important for the children to feel "interesting and funny" during the outdoor play, and they recognized that the play would be helpful for the children's socialization. However, they felt that a risk factor of the outdoor play was "a vehicle risk in streets." Second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re were outdoor playgrounds around parents' houses, and a type of the outdoor play was "a playground installed in the apartment complex." Furthermore, most of the parents weren't satisfied with the outdoor play because the apartment neglected the management of the playgrounds, and there were no playing facilities that were good enough to derive children's curiosity and adventurous spirit. The result also showed that most of the children played outdoors with "their mothers," and they participated in indoor activities, especially playing a game or watching TV rather than outdoor activities after attending a children educational institute. Lastly, when it comes to areas of outdoor play to be improved, it was necessary to "expand playgrounds that children can use for each season," build "safe playgrounds" for a type of the outdoor play, "provide "playing spaces" for a spatial type, and "control vehicles around the playgrounds and deal with dangerous thing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The result can expand the understanding of outdoor play for Young Children and offer discussions about the relevant organizations and studies.

■ keyword : | Outdoor Play | Parent | Young Childre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바깥놀이를 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자신의 오감을 이용하여 보고, 듣고, 주무르고, 만져보면서 다양한 감각경험과 학습경험을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유아들과 같이 어울려 놀면서 여유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유아들의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즉, 바깥놀이는 유아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 언어 발달에 있어 많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깥놀이는 유아들의 신체 및 운동기능발달과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언어, 인지 발달 등을 돕는 중요한 활동으로 유아들은 바깥에서의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바깥놀이가 가지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지도에 대한 내용을 부모에게 알림으로써, 유아들의 바깥놀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신동주(2004)[2]는 바깥놀이가 유아에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실내놀이 및 환경에 대한 계획과 구성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바깥놀이 및 환경의 계획과 조직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 바깥놀이를 하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유아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안전, 책임 등의 문제를 들며 대부분의 놀이가 유아교육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가 실내놀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부모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유아는 놀이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실내, 실외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놀이를 한다[3]. 바깥놀이 공간은 실내공간보다 넓기 때문에 유아에게 자유로운 탐색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유아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환경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깥놀이는 실내놀이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유아들이 다양하고 활발한 놀이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풍부한 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바깥놀이터가 이상적인 놀이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위치와 면적, 지면, 재질, 통로의 구분, 공간 조직 등 바깥놀이 장 자체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임재택 외(2008)[4]도 유아의 바깥놀이에 대한 자연적인 요구와 도전감, 호기심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바깥놀이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깥놀이 환경은 전통사회의 살림집의 앞마당과 같이 넓고, 여러 연령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 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바깥놀이는 자연과의 풍부한 교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깥놀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아교육기관이 이러한 공간을 잘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바깥놀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바깥놀이가 실내놀이의 연장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유아들이 다양하고 활발한 놀이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함께 느끼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풍부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유아는 유아기에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놀이 조건이 차단된 채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유아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컴퓨터·인터넷·영어 및 예능학습 등을 조기에 경험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확인된 것이 없고 오히려 지나친 조기교육의 '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5].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를 매우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생활환경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대 유아들의 일상생활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6]. 여기에 여성의 취업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유아는 물론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취업모 가정의 유아는 불가피하게 어머니의 부재상황을 맞게 되며, 어머니를 대신하는 대리 양육자나 유아교육기관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7]. 이영미(2011)[8]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 유아들의 기본생활시간은 7시 반~8시에 기상하여 8시~8시 반에 아침을 먹고, 8시 반~10시 사이에 유아교육기관으로 등원하며 오후 2시~5시에 귀

가하였다. 그리고 오후 7시 반에 저녁을 먹고 9시 반~10시에 취침하여 평균 수면시간은 9.82시간이었다. 유아들이 이러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고 귀가한 후, 지역사회에서 또래들과 함께 놀이도 하지만, 일주일에 2~5회에 걸쳐 평균 1~2시간씩, 주로 놀이터, 공원, 집 앞 공터 등지에서 놀이터 기구를 타거나 자전거 등의 탈 것을 이용하면서 바깥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러한 바깥놀이가 주거 공간의 협소, 지역사회 정원의 부재, 놀이터 부족 등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바깥놀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유아들의 안전은 물론 성장·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9]. 산업화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아이들의 바깥놀이 공간에 있어 변화를 가져와, 또래들과 놀이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골목길과 한적한 도로, 텃밭, 개울가 등 그들만의 비밀기지가 사라져 버리고, 놀이공간이라고 하는 동네 놀이터도 놀이기구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파손된 경우도 있고 주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위험성도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전환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의 바깥놀이시간은 점점 줄고 있다[10]. 또한 조기교육과 사교육의 열풍으로 어릴 적부터 학습과 예체능의 학원을 다니며 놀이시간을 대체하고, 부모의 출퇴근과 함께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정으로의 유아의 일상이 반복되어 바깥놀이 환경을 접할 기회가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다[11][12].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실내놀이 대한 계획과 구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깥놀이나 그 환경의 계획과 조직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며, 바깥놀이는 주로 신체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적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3]. 또한 바깥놀이를 할 때 안전성, 책임성 등에 대한 문제로 유아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부모들의 학습 지향적 요구로 인해 바깥놀이를 기피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평가에서 물리적 환경이 다시 중요시 되면서 바깥놀이도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되었다. 최근 누리과정에서도 바깥놀이 및 바깥놀이 환경 역시 재조명되고 있어 바깥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연구, 실외환경에 따른 놀이형태, 바깥놀이 운영 실태, 바깥놀이 시설 환경의 실태 조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는 바깥놀이에 대한 인식을 '실외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대근육 활동을 통한 신체발달에 국한된 인식'을 하고 있어 바깥놀이를 통한 전인발달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들은 바깥놀이 활동의 적합한 장소로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바깥놀이는 유아들에게 건강·신체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았다[13-15].

김정연(2009)[19]은 부모들이 실외놀이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건강과 신체발달을 도울 수 있어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언어나 인지적인 면의 발달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혔다. 가정에서 실외놀이는 자녀와 함께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는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육아참여시간이 줄어 유아의 성장발달에 부모가 실생활에서 적절한 보육과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연정(2011)[13]은 어머니의 대부분이 바깥놀이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유아교육기관 내 놀이터를 바깥놀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바깥놀이 공간의 바닥 소재는 어린이집은 우레탄 또는 고무바닥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유치원의 경우 잔디밭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외놀이 운영 실태는 일주일에 3-4회, 하루에 21-30분, 운영편성시간은 하루일과중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명희(2016)[16]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바깥놀이 시간이 하루 34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이 때문에 교사의 유아안전지도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바람직한 실외놀이 운영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란(2011)[17]은 유아의 실외놀이에 대한 부모인식은 실외놀이 중요성과 실

외놀이 선호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아의 일상생활과 놀이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유아의 일상생활이 실외보다는 실내 놀이에 치중되고 놀이보다는 학습으로 시간을 보내며 유아교육기관이 유아들이 집단으로 장시간 생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는 유아들의 바깥놀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마음껏 뛰어 놀며 심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바깥놀이 공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의 긴밀한 협조와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바깥놀이에 대한 교사와 부모 간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깥놀이의 장애요인으로 실외에서의 안전문제, 공간문제, 시간문제, 놀이관련 프로그램 부족, 놀이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선행연구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 요인들의 재확인 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모가 인식하는 바깥놀이 현황은 어떠한가?
- 둘째, 부모가 인식하는 바깥놀이 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부모가 바깥놀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의 유치원의 부모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연락 후 각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설명을 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유아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28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누락된 응답 및 이중 응답인 11부를 제외한 총 269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바깥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박미혜(2009), 김정연(2010), 차유미(2015)[18-20]의 바깥놀이 관련 연구의 설문지를 토대로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이 협의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배경 5문항, 바깥놀이의 인식 5문항, 바깥놀이의 실태 7문항, 바깥놀이의 개선점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설문 내용과 문항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내용 및 문항

문항 내용		문항 수
일반적 배경	연령, 학력, 자녀수, 소득, 주거형태	5
바깥놀이 인식	시간, 형태, 중요성, 발달영역, 위험요인	5
바깥놀이 실태	바깥놀이 유무, 종류, 만족도 및 관리정도, 불만족에 대한 이유, 대상, 활동영역	7
바깥놀이 개선방안	영역, 형태, 공간 활용, 안전사고	4
전체		21

3. 자료 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일상적 바깥놀이 현황 및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바깥놀이 인식

1.1 바깥놀이에 필요한 시간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놀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1-2시간이 167명(62.1%)로 가장 많았으며, 2-3시간 64명(23.8%), 1시간 이내 33명(12.3%)순이었으며, 5명(1.9%)은 방과 후 모든 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바깥놀이 시 필요한 시간으로 1-2시간이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바깥놀이 시 필요한 시간 *N*=269

구 분	<i>N</i>	%
1시간 이내	33	12,3
1-2 시간	167	62,1
2-3 시간	64	23,8
방과후 모든 시간	5	1,9
전 체	269	100,0

1.2 바깥놀이 형태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놀이 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바깥놀이 형태 *N*=269

구 분	<i>N</i>	%
모험심이 길러지는 놀이터	23	8,6
공터를 활용한 흙, 모래	60	22,3
숲 놀이터	112	41,6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	74	27,5
전 체	269	100,0

[표 3]과 같이, 숲 놀이터가 112명(41.6%),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 74명(27.5%), 공터를 활용한 흙, 모래 60명(22.3%), 모험심이 길러지는 놀이터 23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바깥놀이 형태는 숲 놀이터인식하고 있었다.

1.3 바깥놀이의 중요성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놀이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바깥놀이의 중요성 *N*=806(중복응답)

구분	<i>N</i>	%
재미	146	18,1
자신감	49	6,1
자기만족	50	6,2
끈기	13	1,6
모험심	72	8,9
운동능력	137	17,0
문제해결능력	38	4,7
뇌발달	24	3,0
성취감	25	3,1
표현의 자유	50	6,2
사회성	125	15,5
또래집단	77	9,6
전체	806	100,0

[표 4]와 같이, 재미가 146명(1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운동능력, 사회성, 또래집단, 모험심, 자기만족과 표현의 자유, 자신감, 성취감, 뇌발달, 끈기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바깥놀이의 중요성 다시 말해 얻어지는 것은 재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4 바깥놀이의 발달영역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놀이가 미치는 발달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표 5. 바깥놀이가 미치는 영향 *N*=269

구 분	<i>N</i>	%
신체발달	70	26,0
언어발달	4	1,5
인지발달	16	5,9
사회성발달	103	38,3
정서발달	76	28,3
전 체	269	100,0

[표 5]와 같이, 사회성발달이 103명(38.3%), 정서발달 76명(28.3%), 신체발달 70명(26.0%), 인지발달 16명(5.9%), 언어발달 4명(1.5)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바깥놀이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성발달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5 바깥놀이의 위험한 요인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놀이에서의 위험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바깥놀이의 위험한 요인 *N*=269

구 분	<i>N</i>	%
놀이터의 위생상태 때문에	47	17,5
위급한 상황에 안전관리가 없어서	83	30,9
오고가는 길에 차량의 위험 때문에	111	41,3
놀이시설이 위험해서	15	5,6
기타	13	4,8
전 체	269	100,0

[표 6]과 같이, 오고가는 길에 차량의 위험 때문에 111명(41.3%)이었으며, 다음으로 위급한 상황에 안전관리가 없어서 83명(30.9%), 놀이터의 위생상태 때문에

47명(17.5%), 놀이시설이 위험해서 15명(5.6%)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바깥놀이에서의 위험한 요인으로는 오고하는 길에 차량의 위험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바깥놀이터 실태

2.1 바깥놀이 유무

집 주변의 바깥놀이 유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바깥놀이 유무 N=269

구분	N	%
있음	218	81.0
없음	51	19.0
전 체	269	100.0

[표 7]과 같이, 218명(80.0%) 이 집 주변에 바깥놀이 터가 있었으며, 51명(19.0%)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주변 대부분 바깥놀이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바깥놀이 시 함께하는 대상

바깥놀이를 하는 경우 함께 하는 대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바깥놀이 시 함께하는 대상 N=269

구분	N	%
엄마(母)	149	55.4
아빠(父)	17	6.3
형제, 자매	43	16.0
또래집단	37	13.8
조부모 또는 도우미	23	8.6
전체	269	100.0

[표 8]과 같이, 엄마와 함께 149명(55.4%), 형제, 자매 43명(16.0%), 또래집단 37명(13.8%), 조부모 또는 도우미 23명(8.6%), 아빠와 함께 1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 시 함께하는 대상으로는 엄마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3 바깥놀이 종류

[표 9]에서 집주변에 바깥놀이터가 있다고 응답한 자에 한해 바깥놀이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바깥놀이 종류 N=218

구분	N	%
아파트 놀이터	195	89.4
학교 운동장	2	.9
인근 숲	2	.9
어린이 공원	17	7.8
공터	1	.5
체육 시설	1	.5
전 체	218	100.0

[표 9]와 같이, 아파트 놀이터가 195명(89.4%), 어린이 공원 17명(7.8%)이었으며, 운동장, 인근 숲, 공터, 체육시설에 대한 응답의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즉, 바깥놀이 종류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시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3.1 바깥놀이 만족도 및 관리정도

[표 10]에서 집주변에 바깥놀이터가 있다고 응답한 자에 한해 바깥놀이 만족도 관리정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표 10]과 같다.

표 10. 바깥놀이 만족도 및 관리정도 N=218

구분	만족도		관리정도	
	N	%	N	%
만족함	19	8.7	19	8.7
보통임	114	52.3	135	61.9
불만족	85	39.0	64	29.4
전 체	218	100.0	218	100.0

[표 10]과 같이, 바깥놀이 만족도에서는 114명(52.3%)이 보통, 85명(39.0%)이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며, 만족은 겨우 19명(8.7%)밖에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 바깥놀이 관리정도에서는 135명(61.9%)이 보통 64명(29.4%)이 불만족 19명(8.7%)이 만족으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2 바깥놀이 불만족에 대한 이유

[표 10]에서 바깥놀이 만족도 및 관리정도에 대하여 보통 또는 불만족 응답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표 11]과 같다.

표 11. 바깥놀이 불만족에 대한 이유 N=199

구분	N	%
놀이터가 다 똑같아서 재미가 없음	68	34.2
계절에 따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36	18.1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만한 놀이시설이 없음	75	37.7
놀이시설이 대체로 위험함	9	4.5
기타	11	5.5
전체	199	100.0

[표 11]과 같이,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만한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75명(37.7%), 놀이터가 다 똑같아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68명(34.2%), 계절에 따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36명(18.1%), 놀이시설이 대체로 위험해서 9명(4.5%)으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만한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다.

2.4 방과 후 활동 영역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 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다.

표 12. 방과 후 활동 영역 N=532(중복응답)

구분	N	%
보습학원	17	3.2
예체능 학원	64	12.0
게임이나 TV시청	132	24.8
바깥놀이	100	18.8
집안에서의 놀이	188	35.3
문화 센터	15	2.8
자기 주도 학습	16	3.0
전체	532	100.0

[표 12]와 같이, 집안에서 놀이가 188명(3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게임이나 TV시청이 132명(24.8%), 바깥놀이 100명(18.8%), 예체능학원 64명

(12.0%), 보습학원 17명(3.2%), 자기 주도 학습 16명(3.0%), 문화 센터 15명(2.8%)순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활동 영역으로 대부분 집안에서 놀이를 하거나 게임 또는 TV를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바깥놀이의 개선방안

3.1 바깥놀이 영역의 개선점

바깥놀이 영역의 개선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3]과 같다.

표 13. 바깥놀이 영역의 개선점 N=269

구분	N	%
바깥놀이 공간 확대	96	35.7
복합놀이 증설	61	22.7
계절별 이용 시설확대	71	26.4
놀이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41	15.2
전체	269	100.0

[표 13]과 같이, 바깥놀이 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96명(35.7%)이었으며, 계절별 이용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71명(26.4%), 복합놀이 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61명(22.7%), 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41명(15.2%)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바깥놀이 형태의 개선점

바깥놀이 형태의 개선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4]와 같다.

표 14. 바깥놀이 형태의 개선점 N=269

구분	N	%
모험심이 길러지는 놀이터	47	17.5
공터를 활용한 흙, 모래	72	26.8
숲 놀이터	70	26.0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	80	29.7
전체	269	100.0

[표 14]와 같이,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 80명(29.7%), 공터를 활용한 흙, 모래 72명(26.8%), 숲 놀이터 70명

(26.0%), 모험심이 길러지는 놀이터 47명(17.5%)순으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 형태의 개선점으로는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우레탄, 낮은 놀이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바깥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점

바깥놀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5]와 같다.

표 15. 바깥놀이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점 N=269

구분	N	%
자연 공간(동식물 서식 관찰)	78	29.0
놀이 공간(모래, 돌, 나무)	116	43.1
모험 공간(정글짐, 땅굴)	44	16.4
개방 공간(침터, 음수대, 주차장)	31	11.5
전 체	269	100.0

[표 15]와 같이, 놀이 공간이 116명(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 공간 78명(29.0%), 모험 공간 44명(16.4%), 개방 공간 31명(11.5%)순으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놀이 공간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바깥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점

바깥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바깥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점

N=269

구분	N	%
놀이 공간 개선 및 질 관리	83	30.9
전문가에 의한 놀이시설 안전점검	50	18.6
놀이터 안전교육 및 놀이지도	47	17.5
주변 차량 통제 및 위험물 관리	89	33.1
전 체	269	100.0

[표 16]과 같이, 주변 차량 통제 및 위험물 관리 89명(33.1%), 놀이 공간 개선 및 질 관리 83명(30.9%), 전문가에 의한 놀이시설 안전점검 50명(18.6%), 놀이터 안전교육 및 놀이지도 47명(17.5%)순으로 나타났다. 즉, 바깥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차량 통제

및 위험물 관리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의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일상적 바깥놀이의 실태를 분석하여 바깥놀이의 질적 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부모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문제에 의거하여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바깥놀이 인식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놀이에 대해서는 시간, 형태, 놀이의 중요성, 영향, 위험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깥놀이 시 필요한 시간으로 '1-2시간'이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김정연(2009)[20]의 연구에서 가정에서는 하루에 1시간씩 2회 정도가 적합하다고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3-5세 누리과정 도입배경에서도 유아의 신체운동을 위한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었으며, 1일 1시간 이상의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3-6세 영유아의 하루 평균 바깥놀이 시간이 34분이라고 제시하는바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시간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즉, 요즘 현대 사회에서의 유아들이 바깥 놀이보다는 실내에서 노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5], 실내에서는 대부분의 정적인 활동인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1].

바깥놀이 형태는 "숲 놀이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배하영(2016)[22]과 신동주(2004)[2]의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와 삶과 배움이 함께 자연 속에서 통합되며 유아들이 변하는 원천으로서 바깥놀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임재택(2005)[23]의 생태유아교육개론에서 자연 속에서 놀이는 궁극적으로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이상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바깥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이경미(2009)[24]의 연구에서 놀이 중 유아가 하루 일과 속에서 가장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놀이가 바깥놀이라고 하였으며, 조성은(2012)[25]의 연구에서도 바깥놀이를 통해 마음껏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아는 자발적으로 놀이를 시작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몰입하게 되며, 더불어 부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깥놀이 통해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성 발달'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재택외(2002)[10]의 연구에서 유아는 자연 속에서 또래친구와 어울려 놀며 여유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는 연구 결과와 유영은(2015)[26]의 생활주체에 따른 예술 활동 중심의 협동적 바깥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성, 정서지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시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Wang JuanJuan(2013)과 권연정(2011)[13][14]의 연구결과에서 바깥놀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건강 및 신체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깥놀이가 건강 및 신체발달에만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7]. 즉, 바깥놀이는 한 영역이 아닌 모든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전인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놀이 활동으로[28] 바깥놀이를 통해 다양한 놀이기구와 공간을 선택하여 놀이하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교대하고 함께 계획하는 등 사회적 기술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또한 더불어 운동놀이 기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의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이는 언어사용능력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9].

바깥놀이에서의 위험한 요인으로는 '오고가는 길에 차량의 위험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보라(2013)[30]의 연구에서 바깥놀이 실행 부분에 있어 안전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박미혜(2009)[17]의 연구에서도 바깥놀이 시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깥놀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명희(2016)[20]와 정경란(2001)[16]의 연구에서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깥놀이의 장애요인으로 안전사고, 시설 및 공간의 부족, 일과 운영상 시간 부족, 놀이에 대한 부모의 낮은 인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는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영유아가 바깥놀이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장애요인은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에 의한 안전은 경찰청 교통과(2010)[31]의 자료에서 사고의 원인 중 75%가 차량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위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2. 바깥놀이 실태

바깥놀이 실태에 대해서는 집 주변의 놀이터 유무, 바깥놀이 시 함께 놀이하는 대상, 종류, 만족도, 그에 따른 이유,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주변에 아이가 혼자 오고 갈 수 있는 바깥놀이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깥놀이 시 함께하는 대상으로는 '엄마와 함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마가 아빠보다 자녀의 신체적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며,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역할에 있어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바깥놀이 시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바깥놀이 종류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수경(2008)과정은주(2009)[32][33]의 연구에서 가정보육시설 내에 실외놀이 공간 활용에서도 88% 이상이 주변의 놀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더불어 전수경(2008)[32]의 연구에서 단지 내의 놀이터를 바깥놀이로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동거리와 이동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깥놀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였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이유는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만한 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희(2015)[34]의 연구에서 바깥놀이터는 유아의 감각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유아의 놀이를 장려한다고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바깥놀이터는 동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적인 활동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미칠 것이다.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는 대부분 집안에서 놀이를 하거나 게임 또는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정선(2004)[35]의 연구에서 멀티미디어에 의존한 놀이가 대부분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바깥놀이터에 나가더라도 함께 놀 친구가 없기 때문임을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보다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TV나 비디오 시청과 컴퓨터 게임 등으로 인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36].

3. 바깥놀이 개선방안

바깥놀이 개선방안에서는 필요한 영역, 형태, 공간 활용, 안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깥놀이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계절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금(2011)[37]의 연구에서 바깥놀이를 할 때 대근육 활동, 모래놀이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것과 계절적 변화에 따른 탐구를 강조하고 있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바깥놀이에서도 영유아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바깥놀이 형태의 개선점으로는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우레탄, 낮은 놀이기구)'로 나타났다. 놀이터 바닥에 따른 유아의 바깥놀이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진금(2011)[37]의 연구에서도 고무바닥은 추락 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으며, 특히 고무바닥은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안전을 강조한 놀이터는 영유아가 놀이할 때 있어 최소한의 장애를 줄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바깥놀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놀이공간'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숙재와 이봉선(2000)[29]의 연구에서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바깥놀이터의 시설과 설비는 바깥놀이터의 위치와 면적, 지면, 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류진순(2003)[38] 또한, 바깥놀이터는 유아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공간인 동시에 안전한 환경이어야 하며, 잘 관리된 바깥놀이 공간은 유아기 환경에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바깥놀이터의 구성은 지속적인 시설 및 설비 보수와 재배치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39].

바깥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차량 통제 및 위험물 관리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은(2007)[40]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바깥놀이터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특히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제시하는 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뿐 만 아니라 교사에서도 바깥놀이에 있어 안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은영(2017)[42]의 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유아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결과는 영구적·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바깥놀이는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놀이이며, 실외놀이터에서 유아의 흥미에 따라 활동적 또는 조용한 놀이를 함으로써[42] 대근육 활동의 기회와 풍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바깥놀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기관 및 연구에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하정연, 조채영, "일본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 운영실제에 관한 사례연구: 자유보육기관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연구, 제8권, pp.45-67, 2002.
- [2] 신동주, "유치원의 실외 놀이 활동 실태 및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연구, 제24권, 제6호, pp.299-325, 2004.
- [3] 이명덕,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유아 실외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고신대학교 교육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임재택, 김은주, 하정연, 권미량, 조채영, *생태유아 교육 프로그램*, 서울: 공동체, 2008.
- [5] 이기숙, 신동주, 엄정애,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실외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실태분석,” *교육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pp.159-185, 2006.
- [6] 김현정, *우리나라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7] 김선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남녀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8] 이영미, *유아의 일상생활, 자녀양육과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9] 송민영, “부모와 자녀의 세대별 유아가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23-46, 2005.
- [10] 임재택, 하정연, 조채영, *선생님! 바깥놀이 해요*, 서울: 양서원, 2002.
- [11] 김인숙, *유치원의 실외놀이 시설 설비실태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2] 김정원, 최은영, 김경분, “상상놀이터 그리기를 통해 나타난 유아의 실외놀이터와 놀이시설에 대한 이미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4권, 1호, pp.189-211, 2010.
- [13] 권연정,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 인식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4] J. J. Wang, *한국과 중국 부모의 유아 바깥놀이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5] 이미옥, *가정어린이집 영아의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 인식 및 요구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6] 이명희, *누리과정에 기초한 유치원 바깥놀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7] 정경란, *실외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가정에서 실외놀이 실행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8] 박미혜, *어린이집 실외놀이 시설실태 및 실외놀이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2009.
- [19] 차유미, *어머니들이 구성하는 바깥놀이의 의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김정연, *가정에서의 유아 실외놀이 실태 및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1] 정수영, *생태지향 유아교육에 기초한 바깥활동 실태 및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2] 배하영, *바깥놀이가 유아들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3] 임재택, *생태유아교육개론*, 경기: 양서원, 2005.
- [24] 이경미,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하루일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5] 조성은, *만5세 유아 바깥놀이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실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6] 유영은, *생활주제에 따른 예술 활동 중심의 협동적 바깥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성,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27] 이명덕,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유아 실외놀이 운영 실태 및 교사의 인식*,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8] 김성옥, *생태중심 유아교육에 대한 교수, 원장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9] 이숙재, 이봉선, “실외놀이에 대한 교사의 역할 인식과 실제 행동과의 관계,” *교육연구*, 제34권, pp.1-23, 2000.
- [30] 한보라, *누리과정에 기초한 바깥놀이 실태 조사 연구*,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1] 경찰청, *통학차량 신고 현황 통계자료*, 2010.
- [32] 전수경,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3] 정은주, *가정보육시설에서의 실외놀이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4] 김희희, *만 3세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한 실행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5] 유정선,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실외놀이 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6] 김희정, “유아교육기관 귀가 후 유아의 일과 실태 분석: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pp.293-311, 2010.
- [37] 김진금, *실외놀이터 바닥에 따른 유아의 바깥놀이 경험에 관한 연구: 고무바닥과 모래바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8] 류진순,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실외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9] J. Sutterby and J. Frost, “Creating play environments forearly childhood: Indoors and out,” *Handbook of research on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ew York: Routledge, pp.305-321, 2014.
- [40] 이상은,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7.
- [41] 강은영, *유치원의 바깥놀이 활성화를 위한 참여적 실행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42] 김재숙, 임미혜, 김선희, 김혜경, 배선미, *유아교사를 위한 실외놀이, Guide Book*, 서울: 정민사, 2004.

저 자 소 개

김 용 숙(Yong-Sook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교육학석사)
- 2004년 8월 : 한남대학교 교육학박사(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교육과정, 유아사회교육

윤 희 봉(Hee-Bong Yoon)

정회원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04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특수아심리, 통합교육

유 지 은(Ji-Eun Yoo)

정회원



- 2006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서울한영대학교 유아특수재활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수-학습방법, 유아수학교육, 장애아보육, 아동건강교육, 영유아발달